

驪江처럼

2014 전반기 통권 23호

蚊 子 문자

나옹선사 (懶翁禪師 1320~1376)

고려왕사 신륵사에서 입적

不知元來氣力少 제 힘이 원래 약함을 알지 못하고
喫血多多不自飛 피를 너무 많이 먹어 날아가지 못하네
勸汝莫貪他重物 너에게 권하노라 남의 중한 물건 탐하지 말라
他年必有却還時 다른 날 반드시 돌려 줄 때 있으리니

어지러운 시절을 불심으로 헤치며 신진 사류들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꿈꾸다가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권력의 두려움과 시기로 남도 유배를 당해 남한강을 거슬러 오르다 죽음을 예감하고 “별로 특별한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입멸하였다. 오늘도 우리 여주 땅에서 향화를 받으며 유혼을 드리우고 있다.



2014 전반기 통권 23호

제자題字 『驪江처럼』 사농 전 기 중

여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을 여주시사람들은 여강(驪江)이라 부르며 수 천 년을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 여강은 여주를 라말려췌 때부터 부르던 이름이었던 황려(黃驪)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여주의 강이라는 자부심과 애착이 오롯이 그 이름에 담겨있다.

CONTENTS

표제시 | 蚊子 문자

02 포토 에세이 | 소녀시대

03 발간사 | 김문영 원장

04 여행기 | 예술과 영혼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 / 조상민

10 여주의 아름다움 | 여강 지킴이 부처울 마애불 / 전기중

14 우리 동네 이야기 | 삼도의 세물머리 삼합리

16 즐거운 책읽기 |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조안 앤더슨)

18 여주의 역사와 문화 | 세종대왕릉과 팔대장림

22 문화원 사람들 | 문화는 미래의 역동적 삶이다

25 여강편지 | 여주에서 '진짜' 보물찾기 / 강수천

26 수필1 | 아이들과 떠나는 역사 속 여주여행 / 김금자

27 수필2 | 개구락지 우는 밤 / 유명은

29 서평 | 예언자(칼릴 지브란) / 안동희

31 여주의 민속 | 원부리 답교놀이

32 여주의 문화예술 | 면벽 수행하는 선승 같은 작가, 권혁용

34 집현전 | 세종대왕과 여주 / 조성문

38 문화원이 한일 | 문화원 활동 소개(2014년 상반기)

38 회원동정 | 회원 경조사

39 문화원 가족 | 회원 명단

40 문화원 안내 |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소녀시대

아들 딸 소풍 길

마음은 소녀시대

풍진세월에

새댁네 할매되고

자식들도

어느덧 꽃 중년,

천만 년 강물만

동대에 출렁이네

● ● ● 발 간 사

푸르름이 희망으로 짙어지는 6월입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가슴이 멎었고 총기 난사 사건으로 멎든 가슴이 한 번 더 철렁이긴 했지만 저 푸르름이 있어 다시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날들입니다.

회원님 댁내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문화원은 새해 해맞이, 정기총회, 본두리 낙화놀이, 경남 하동 유적답사 등의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민연구원, 여주 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한 체계 있고 심도 있는 연구조사와 여주시민의 문화적 소양 제고를 위한 전기를 이룩했습니다. 이와 연관되어 실시되고 있는 어르신 문화학교와 초·중등학생 주말 버스학교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여주의 존재감을 대외에 드러내는 시작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430여 회원님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성적인 참여가 있어 가능했기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발간된 「여강처럼」 3호는 여주의 속살과 숨결들을 모아 좀 더 깊이 있고 친근하게 여주를 알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문화를 아끼는 분들이 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회원을 확충하되 무분별하게 회원을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야에 관심이 깊고 열정 있는 회원들을 모아 여주 문화와 접목하는 일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자기 일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바람직한 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여주문화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가정에 변창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강처럼」 3호가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신 박광우 부원장님과 편집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문화원장 김문영





● ● ●
예술과 영혼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

조 상 민

2014년 5월,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가를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이하 페테르)에서 보내기로 했다. 세계 3대 박물관의 하나라는 그 곳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가보고 싶었다.



1.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와 고르호바야 거리

나는 페테르의 첫 방문지로 이삭 성당을 택했다. 이삭성당은 러시아 최대 규모의 성당으로 황금빛 둥근 돔이 멀리서도 태양처럼 환하게 보인다. 그 입구에 서면 지붕의 돔과 거대한 자주 빛 열주가 외형적으로 사람을 압도한다. 이 거대한 건축물 앞에서 나는 인간의 왜소함과 함께 인간의 위대함도 동시에 느꼈다.

이삭성당을 등지고 왼편 2차선 도로 쪽으로 난 거리가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다. 이 거리에서 나는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차이코프스키가 살던 아파트들을 만났다.

페테르에 오기 전 나는 러시아어 공부를 조금 했다. 러시아어 공부라기 보단 간단한 단어 몇 개와 간신히 글자를 읽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작은 노력이 이번 여행에서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페테르에 가보니 거리에는 영어로 된 간판이나 표지판이 거의 없고 오직 러시아어 일색이었다.

페테르 여행을 계획하기 전 나는 고골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그런데 여행을 준비하던 어느 날, 서가에서 고골이 지은 <삐쭈르부르크 이야기>라는 책이 눈에 띄었다. 나는 이내 단숨에 그 책에 빠져 들었다.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관찰, 품위 있는 풍자, 그리고 환상. 풍자와 환상이 없는 삶이란 얼마나 건조한 것인지, 나는 순식간에 고골의 작품에 흥미를 느꼈고 페테르까지 가는 아홉 시간동안 비행기에서 내내 고골의 <죽은 혼>이란 장편소설을 읽었다. 고골은 천재다. 적어도 내 생각엔 그렇다.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를 거닐다 맨 처음 분홍색의 허름한 3층 건물에서 고골의 얼굴이 부조된 안내판을 보았다. 짧은 러시아어 실력이지만 먼지 덮인 낡은 아파트에서 고골이

살던 집이라는 안내판을 터듬거리며 읽어낸 순간 내 눈에 그곳은 핑크 빛 궁전으로 찬란히 빛났다. 마치 고골이 환영 인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페테르 도시의 인상도 덩달아 좋아졌다.

고골의 집을 중심으로 좌우로 차이코프스키와 도스토예프스키 집이 있다. 우리의 풍수적 관점에서 보면 문필봉이 세 개쯤 있어야 되는 동네다.

어떤 요소가 이 위대한 인물들을 이 거리에 살게 했을까? 나는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를 흥미롭게 감상했다.

말라야 모르스카야 거리 고골의 집과 차이코프스키의 집을 사이에 두고 북 쪽으로 고르호바야 거리가 쭉 뻗어 있다. 고골의 단편 <광인 일기>에도 이 고르호바야 거리가 나온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페테르에서의 두 번째 날, 나는 이 거리를 걸었다.

<광인일기>는 주인공이 미쳐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단편이다. 거기에는 주인공이 비가 내리는 고르호바야 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여자를 쫓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작품과 같은 거리, 그리고 마침 비까지 오는 날씨여서 마치 작품 속으로 들어온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거리를 걷다 보니 특이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우산이다. 페테르 사람들은 우산을 쓰지 않는다.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거나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쓰는 정도다.

제법 비가 많이 오는 데도 우산을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광인일기>에서 주인공이 우산을 쓰고 거리를 헤맨 것은 정신의 이상 징후를 암시 한 걸까? 아는 러시아인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졌다. 어쨌든 나는 우산을 쓰고 고르호바야 거리를 거닐었다.

2. 에르미타주 박물관

나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이번 여행에서 두 차례 방문했다. 에르미타주를 보는 것만으로도 페테르에 올 충분한 이유가 된다. 박물관은 아침 10시 30분에 개장하는데 문 열기 전부터 세계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긴 줄을 서 있다. 한 두 시간쯤 기다리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들어서면 그 내부의 화려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황금장식과 빨간 벨벳장식, 코발트 블루색의 보석 식탁 등 궁전의 전체 컨셉이 인간이 상상해 낼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함과 사치다. 에르미타주는 본래 뜻이 <휴식공간>, <은둔지>라는 프랑스어에서 이름을 따 왔다고 한다. 본래는 18C 말 러시아 에카테리나 대제의 개인 소장품을 보관했던 전용 미술관 이었다. 그녀는 본인이 수집한 많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며 서유럽의 고품격 삶의 양식을 염원 했을 것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그 곳을 걷는 것 만 으로는 나를 황홀한 상상에 빠지게 했다.

박물관의 화려한 건물에 눈을 휘둥그레 뜨며 걷다가 인류가 사랑 하는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박물관에서 특히 내가 관심 있게 본 그림은 앙리 마티스의 <춤>과 <음악>이라는 그림이었다. 이 그림들은 본래 한 세트로 제작되었다. <춤>은 익히 알고 있었으나 <음악>은 이곳에서 처음 보게 되어 반가웠다. 마티스 <춤>을 보면 나는 에릭 사티의 피아노 곡 <짐노페디 1번>을 떠올리곤 했다.

슬픈 인간의 운명을 하소연 하는 춤. 슬프고 아름다운 춤이다. 나는 마티스의 방에 놓인 붉은 소파에 앉아, <춤>과 <음악>의 선율을 느끼며 오래도록 머물렀다.



The State Hermitage Museum



에르미타주의 수천의 그림 중에서 내 눈길을 사로잡은 단 한 점을 고르라면 독일 작가 한센 클레버(Johann Peater Hansenclever)의 〈학교에서〉라는 그림을 꼽고 싶다. 제비처럼 입을 벌리고 선생님을 따라 무언가를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빗처럼 아름답고 아파왔다. 나는 그 그림 앞에서 서성이고, 사진 찍고, 그래도 떠나지 못하고 망설였다. 문득 그런 나를 보고 그 방을 지키던 감시인이 내게 와서 살짝 귀뜸을 한다. “그 그림 모조품이 옆방 기념품 가게에 있어요.” 그리곤 빙긋이 웃는다. 나는 그림 속에 빛나는 교실과 눈부신 아이들의 한순간을 한국에 가지고 왔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걸으면서 나는 인간의 삶의 탄생, 고통, 비탄, 한숨, 희망, 영광, 그리고 소멸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져 버린 아름다운 영혼들의 찬란한 시절에 같은 운명의 인간으로서 마음속으로 경의를 표했다. 나에게 에르미타주란 인류가 영원히 기억해줄 삶의 흔적들과 같이 대화 하는 곳이요, 영혼을 가지고 살았던 인류의 숨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에르미타주 박물관은 살아 있는 생명체 그 자체다.

3. 네프스키 대로

고골은 그의 단편 〈네프스키 대로〉에서 “페테르부르크에는 네프스키 대로 보다 더 나은 곳이 없다……. 해야 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곳에만 오면 확실히 모든 일을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라고 이 거리를 소개 한다. 나는 페테르에 머무는 동안 이 거리를 매일 거닐었다. 네프스키 대로에서 내가 처음 방문한 곳은 ‘리터러리(문학)’ 카페다. 이곳은 1815년부터 영업을 한 카페이며, 수많은 러시아의 문인, 예술가, 혁명가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한다. 그중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중요 이유는 시인 푸쉬킨이 이곳의 단골 고객이었으며 그가 죽기 전 이곳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이곳을 떠나 연적과 결투를 벌이다가 패배하여 사망했다. 1837년 그의 나이 37세 때 일이다.

삶이 그대를 속일 지라도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오늘은 언제나 슬픈 것
설움의 날을 참고 견디면	모든 것은 한 순간에 지나가는 것
기쁨의 날이 오리니,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워지리니.

〈푸쉬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나는 이 시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알았다. 40여 년 전 쯤 그 당시 ‘이발소 그림’ 이라고 불리던 액자의 단골 시였다. 그때는 이 액자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는데, 기억 속에는 그 시가 아직도 남아 있다. 신기한 일이다. 카페는 2층에서 영업을 하고 1층에는 창 옆에 앉아 있는 실물크기의 푸쉬킨의 밀랍인형을 볼 수 있다. 문학 카페를 드나들었던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속에서도 지금껏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푸쉬킨을 보니 새삼 예술은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프스키 대로를 걷다보면 또 만나게 되는 인물이 고골이다. 고골의 동상이 네프스키 대로변 카잔 성당 건너편에 서 있다. 아주 멋진 동상이다.

“러시아의 작가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 라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다.

“이 가련한 젊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후 평생 동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 인지, 누구나 알만한 세련되고 품위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조차 그 고상하고 점잖고 자랑스런 인품 뒤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한 면이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고서 얼마나 몸서리를 쳤는지…….”
〈고골, -외투 중에서〉

네프스키 대로의 고골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추운 듯, 몸서리치는 듯, 고뇌어린 포즈를 취하고 서 있다. 네프스키 대로에는 없는 것이 없고 오직 근심만이 없다고 고골은 썼다. 그러나 내 눈에는 ‘스타벅스’ 가 안 보였다. 물론 커피나 음료수를 파는 카페들이 즐비하지만 이곳에서는 카페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대해서 나는 공기가 청정한 아메리칸 스타일의 커피숍이 조금 그리워졌다.

4. 마린스키 극장

페테르에 가기 전 마린스키 극장에 발레 한 편과 오페라 한편을 인터넷으로 예매 했다. 마린스키는 차이코프스키, 쇼스타코비치 등 세계적인 러시아 음악가들이 활동한 극장이다. 나는 감상할 공연으로 톨스토이 원작〈안나 카레리나〉라는 발레 작품과 푸쉬킨 원작, 차이코프스키 작곡의 오페라〈에브게니 오네긴〉을 골랐다. 극장에는 세계각지에서 온 관람객들로 가득 했다. 참고로 페테르의 공연 관람료는 정말 흐뭇할 만큼 저렴했다.

어디로, 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나의 젊은 날의 화려한 시절은?
날 위해 앞으로의 나날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시선을 집중해서 찾으려 해도 모든 것이 어둠에 덮여있네
아무리 해 봐도 운명의 법칙은 공정한 것…….
〈렌스키의 아리아, -어디로 가버렸나 나의 황금빛 봄날이여 중에서〉

오페라 〈에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오네긴의 친구인 렌스키가 부르는 아름다운 아리아를 들으며 세계각지에서 온 많은 관객들은 부라보! 를 열광적으로 외쳤다. 숙소에 돌아와서 나는 비로소 내 집 속에 있던 〈에브게니 오네긴〉을 펼쳐 들었다.

(...) 아무런 흔적 없이

세상을 등진다면 그건 내게 슬프리라.

그래도 난 바라나 보다. 내 슬픈 운명에 영광 있기를

(...) 어쩔(낮간지러운 희망이여)

미래의 문외한이

내 명성 높은 초상화를 가리키며

바로 그 시인이야! 라고 말하리니

평화로운 뮤즈의 추종자여

오, 내 쓴살같은 창조물을 기억 속에 간직할 그대여,

자애로운 손길로 늙은 나의 월계관을 다독여줄 그대여

나의 감사 받을 지어라

〈푸쉬킨, -에브게니 오네긴중 2장 40〉



오, 푸쉬킨 시인이시여! 이 문외한의 무지를 부디 용서하시길!

나는 페테르에서 4박5일간 머물렀다. 그리고 페테르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왔다. 그곳에서 나는 정말 상냥하고 공손한 사람들을 만났다. 바가지를 좀 씌우긴 했지만 택시운전사들도 친절했다. 페테르는 거리 전체가 오래된 유적지였다. 넓고 삭아버린 나무대문, 녹슨 장신구들, 그러나 그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그들의 유산을 보물처럼 가꾸고 살고 있었다. 세련되고 편리한 현대 건축물에 익숙한 내 눈에는 존경 할 만 한 점으로 보였다. 또 시인의 동상 앞에는 어김없이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꽃을 든 남자들이 거리에서 자주 보였다. 아아, 나도 시인의 동상 앞에 꽃을 바치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인간은 '최상의 욕망들과 신선했던 꿈들(에브게니 오네긴)' 을 누구나 한 번쯤 가지고 산다. 우리는 언젠가는 깨닫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존재들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것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 페테르에서 나는 그런 속삭임들을 듣고 왔다. (2014. 05)

※ 글쓴이 조상민은,

여주문화원의 회원이자 주부. 여주에 수능시험장이 없어 아이들이 불편을 겪자 부모들과 힘을 모아 수능시험장을 여주로 유치했다. 지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가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여강 지킴이 부처울 마애불

전기중

‘부처울’이라는 이름은 부처님 울타리를 뜻한다. 여주 시청에서 강을 따라 쪽 내려가다 보면 이포 조금 못 미쳐 흥천면 계신리 마을회관이 있는 아담한 동네가 부처울이다. 마애불은 마을을 지켜주고, 마을은 마애불을 보호하며 그렇게 천년세월을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 가족처럼 살아왔다.

검룡소로부터 천리 길을 쉽 없이 달려와 숨이 조금 거칠어진 남한강. 이천을 남북으로 가르며 내려온 암전한 북하천과 합류하는 지점에 서 있는 마애불은 그 구성이 아주 세련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고려 말에 조성된 명품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큼직한 육계, 이마에 백호, 선명한 삼도와 두광, 원만한 상호, 유려한 가사의 흘러내림, 조화로운 균형미, 화염문, 연화문 등 완벽하게 구비된 불상을 본 사람들은 안목 없는 시골 석수의 만만함 숨씨는 아닐 것이라고 단언하며 두 번 세 번 이곳을 찾게 된다고 한다.

1958년 청량리에 살던 박순남이란 보살님이 어느 날 한 번도 빈 적 없는 마애여래 부처님을 친견하는 꿈을 꾸었다. 주위의 식자들에게 꿈속에 빈 부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또 설명하니 누군가 계신리로 가보라고 알려주었다. 묻고 물어 찾아 내려오니 단아한 마애불이 잔잔한 남한강의 떠오르는 일광을 받아 자비광명을 내비치며 서 계셨다. 환희에 가득 찬 박순남 보살은 마애불 옆 공터에 움막을 짓고 열심히 기도하며 지내기 시작했다. 부처울 마을에 대대로 살며 불심이 돈독했던 이호선 씨 집안은 이 산의 주인이었다. 보살의 신심에 감동한 이호선 씨는 탁발 고행이 안쓰러워 양식을 대주었고 추울 때는 당신의 집으로 옮겨 살게 해주었다.

3년 기도 후 보살이 법당 건립을 발원하자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이호선 씨 동생 이무호 거사가 독섬에서 법당 건립에 필요한 부재를 배에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그 때는 아직 팔당댐도 이포 보도 없었으니) 자신들의 종중산인 이곳에 아담한 법당을 지어 보살의 수행에 도움을 주었고, 훗날 법당 아래에 요사를 지어 스님들의 절 살림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듬해 슬하에 딸만 다섯이었던 이호무 거사 덕에 득남의 경사가 일어나니 주위에서 마애여래부처님의 영험한 가피라고 입을 모아 칭송하였다. 이 후 부처울 마애불은 득남을 비는 도량으로 입소문이 나 경향각지에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이씨 종중에서 석불암 뚝으로 논을 장만해주니 일 년에 몇 섬의 쌀이 도지로 들어오고 있었다. 무주상보시행을 거듭 실천한 이씨 형제들의 아름다운 선행에 반드시 부처님의 큰 응보가 따르리라 믿는다.

박순남 보살의 원으로 이루어진 석불암은 오늘날까지 비구니 스님들이 이어가며 기도정진으로 암자를 수호하고 있다.

근래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의 책에도 자세히 실렸고 마에 불에 반한 이치누 씨가 여러 번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으며 아침 햇살을 받은 부처님의 평화로운 미소에 환희심이 솟아났다고 지면에 고백하였다.

깨복쟁이 시절 어른들이 낚시 갈 때 멋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이곳 부처님을 처음으로 뵈게 되었고 이때까지 무시로 찾고 있다.

아직도 처음 그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어른들도 나도 부처님도 물대포를 흠뻑 맞았다. 소나기 그치자 어른들은 낚시가 더 잘된다고 부산하였고 나는 옷을 벗어 너럭바위에 널어놓고, 바위틈으로 모래밭으로 돌아치며 친구들과 강아지처럼 뛰어다녔다. 소낙비에 온몸이 젖었던 부처님 모습은 철부지 아이 눈에는 좀 무서워 보였다. 그러나 피약별에 상반신의 물기가 마르고 다시 환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에서 무한한 평화와 안식을 느꼈다.

마치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김을 매던 우리 어머니가 곱게 단장하고 외출하시던 모습과 흡사했다. 이제는 십년 전에 공사한 보호각 안에 계시니 비를 그렇게 맞을 일도 없을 테고, 4대강 공사로 마애불 아래 모래밭도 너럭바위도 물에 잠겨서 낚시꾼의 접근도 힘들게 되었다.

홍천면 북대리가 고향인 성흥환 시인은 ‘석불암 풍경’이라는 시에서

‘목탁소리 울려나는

석불암 아담하다

(중략)

두견 울어 깊은 밤 강물소리

자장가로 주승이 잠들면

달빛 젖은 마애불만 홀로 자란다」라고 노래했다.

강바람에 펄럭일 듯 곱게 드리운 부처님 옷자락에 살며시 달빛이 찾아들어 아늑하기 만한 야반삼경의 정적이 눈앞에 삼삼하다. 이포초등학교 훈장을 지낸 임택연 시인은 ‘계신리 부처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었다.

「그녀 정수리가 남한강 발원지라며

여주 계신리 부처쫄은

그녀의 배꼽

아니면 조금 더 밑

난 그 곳에서 자주 놀았다.

가끔은 한뼘검둥오리가 되어 놀고

또 가끔은 메기, 쏘가리가 되어 놀고

놀다가 지치면 언덕에 올라

젖은 몸을 말리기도 하고

우거진 들풀 속에 폭 눕기도 하고」

(하략)

시인은 마애불 아래 나무와 물풀이 질푸르게 펼쳐진 복하천 하류의 삼각주를 바라보며 시상을 가다듬은 것 같다.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부처님께 경배하고 이포로 나가 꿀참의 맛도 보고 강 건너 막국수촌에 들러 한 그릇 막국수에 일주일 시름을 달래며 주말 나들이를 마무리 한다.



삼도의 세물머리 삼합리(三合里)





삼합리는 섬강과 청미천, 남한강의 세물이 합수하는 지역으로 삼합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하며, 경기도 점동면과 원주시 부론면, 충주시 양성면의 삼도가 만나서 삼합리라 하였다는 설도 있으나, 이 지역이 땅 길과 물길 모두 셋이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삼합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더욱 당연해 보인다.

삼합리에서 강 하구 쪽으로 가장 아래인 마을을 단진개라 하는데 남한강 수운이 왕성하던 시절에는 매우 번창했던 마을로 청미천의 하류에 있다.

또한 오갑산 능선의 끝자락에 봉우재라는 산이 있는데 경사가 급한 산 아래로 남한강이 흐르고 깊은 소가 있다하여 이곳을 공양소라 부른다. 공양소는 고려 공양왕이 손곡리를 거쳐 삼척으로 유배를 갈 때 이곳에서 쉬어갔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청미천을 거슬러 올라 장호원에 이르면 청미천을 경계로 감곡 매산 마을과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에는 천주교 성모순례지의 명소인 감곡 매괴성당이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한 채 청미천을 굽어보며 서있다. 최초의 성당은 현재의 매괴성당 아래로, 임오군란 때 명성황후가 잠시 피신 하기도 하였던 민용식의 집터이며 일본군이 불태워 찢터미가 된 터 위에 세워졌다가 현 위치로 옮겨 세워진 것이다. 매괴성당은 118년 전인 1896년에 성모님께 봉헌된 이후

수만은 신비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며 한국 최초의 성체현양대회가 개최된 장소이기도 하다. 서해나 마포, 노량 등지에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온 배들은 소금, 새우젓, 생필품 등 각종물자를 남한강에 산재한 포구에 부렸으며 배가 들어오는 날이면 장시가 성황을 이뤘다. 규모가 작은 평저선들은 청미천과 섬강 등 지천를 통해 장호원, 문막 등 상류로 짐을 옮겼고 다시 봇짐과 나귀등에 실려 인근으로 퍼져나갔다.

경제의 통로인 남한강 뱃길을 따라 사회와 문화가 형성되고 소통되면서 소금배에 실려 종교도 함께 들어왔다. 19세기를 전후하여 기독교와 천주교 등 서양의 종교는 내륙으로 손쉽게 통하는 물길을 따라 선교사를 실어 올렸다.

강천교회와 매괴성당, 감리교와 성결교, 천주교는 모두 새우젓 뱃새를 맡으며 남한강유역에 들어와 처음으로 십자가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안동희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

지은이 | 조안 앤더슨

A year by the sea :Thoughts of an unfinished woman

여자 나이 오십.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을 걸다리로 듣자면 '더 이상 여자가 아닌'

참 쓸쓸하고 오기 나는 말이다.

그럴 때 마다 속으로 "흥! 남자들 나이 오십은 남자로 쳐 주는 줄 아남?"

무시하는 여자들의 속내를 남자들은 모를 것이다.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의 저자 조안 앤더슨은 '남편이 일자리를 옮기기 위해 타 도시로 가야 한다고 하자 별거를 결심한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쉰 살. 그녀가 별거에 대해 밝힌 이유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내와 엄마로서의 역할로 젊음을 보낸 쉰 살의 여자. 남편과의 생활을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나선 조안 앤더슨.

"나는 나의 역할에 의해 갈수록 억압당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당연히 나 자신의 행복은 남편을 기분 좋게 해주는데 있었다. 하지만 나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취급되었다" 고 고백한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음을, 자신의 인생이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된다. 직장을 옮기는 남편과 함께 가기를 거부하고 홀로 작은 어촌의 오두막에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하는 자전적 이야기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는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로, 그 자체이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불리기도 하는 아줌마의 불분명한 정체성. 제 3의 성으로 취급되는 여자 나이 오십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고독한 일이다. 더군다나 함께 할 가족도 없이 오로지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아를 찾는다는 시도는 한편으로는 무모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시시각각 찾아드는 외로움과 적막감, 두려움 등의 복잡한 감정들이 때론 아프게 하지만 '자기가 있는 곳을 모른다면 자기가 누군지도 알 수 없다' 는 신념으로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그녀는 아름답다. 누군가를 위한 조연의 삶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찾고 역동성을 느끼는 순간들은 얼마나 황홀한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분간 타인과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 달리 말해 나 자신과의 관계를 되찾는 것 뿐" 이라는 그녀는 무엇에 얽매이지도, 타인의 삶에 구애 받지도 않기 위해 관계의 혼란에서 벗어나려 애쓴다.

글을 쓰면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생활하던 그녀는 생존을 위해 생선가게에 취업을 하고 조개를 캐다 팔면서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호젓한 바닷가를 거닐며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알게 된 조안나. 안개 자욱한 새벽 해변에서 만난 92살의 조안을 만나 우정을 나누면서 삶에 대해 나누는 대화들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해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왔다가 물러서도록 내버려둬요. 결국 인생은 움직임과 느낌의 문제예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 말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감해야 합니다. 사람은 홀로 일 때 발전하고 환멸을 느낀 뒤에야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거랍니다" 홀로 자신 속으로 침잠하면서 상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평온한 어투로 삶의 길을 안내하는 92살의 조안 에릭슨.

삶에 있어 올바른 조언자를 만난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다. 조언자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삶을 느끼고 성장한다는 것. 포기하지 않고 진실한 삶의 희망을 붙들게 된다는 것. 종속적이거나 무언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북돋아 주는 것. 조안 앤더슨이 조언자 조안 에릭슨을 만나는 대목에서는 부러움을 지나 시기심마저 느껴졌다.

〈오십에 길을 나선 여자〉 조안 앤더슨은 길을 나섬으로 인해 뜻밖의 조언자를 만나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찾는데 성공한다. 나이 오십이라는 것에 겁을 먹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을 일이다.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은 온전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예정된 삶을 거부하고 변화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서 놓아줌으로써 얻는 소중한 자유를 획득한 그녀에게 찬사를 보낸다. 바닷가 오두막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면서 자신과 대화하고 자연에 적응하며 삶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여정에 함께 동참하고 싶다.

세종대왕릉과 팔대장림

팔대장림은 여주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강변 숲이자 생태문화자원으로 영릉, 양성, 청심루와 시인묵객, 신록사 등과 함께 여주의 문화유산을 상징한다. 이러한 지역의 생태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하고 보전하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역사 활동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문화 활동이다.

생태문화 또는 문화생태와 강변 숲

생태 또는 문화라는 단어는 이분법적인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생태학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규정되면서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생태학(ecology)의 구도 속에서 인간의 문제 즉 생물학 적 인 인간뿐만 아니라 정신현상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인간의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생태학이 수용 하지 못하는 문화의 영역과 마주치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초원생태계 내에서 야생의 들소를 사냥하며 살아가는 인간집단과 이들 들소를 가축화하여 살아가는 인간집단은 모두가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들소'와 '가축' 사이의 차이는 문화의 형성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인간의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팔대장림은 자연과 사회적 필요에 대한 인간의 적응전략에 의해서 형성된 문화의 표현, 즉 자연을 전유(專有)하는 인간의 능력이 환경과 인간의 관계구도에 내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여강(驪江) 팔대장림(八大長林)의 생성과 소멸

경기도 여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남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며 현재는 오학동과 현암동 일대의 강변에 팔대장림 또는 패다수로 불리는 강변 숲이 있었다.

팔대장림의 기원은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조선조에 들어 세종대왕능이 여주로 천장을 하게 되면서 세종대왕의 적손인 8대군의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로 팔대장림이라 불려지기 시작했다.

팔대장림의 규모는 고지도상 길이가 10리(4km)에 폭이 1리(400m)로 약 50만평으로 추정되며, 영조43년(1767)에 여주목사 이성규에 의해 구결 팔십삼부 육속(약 50,000여평)이 농경지로 개간되어 황폐화 되었고 이일로 여주목사는 파직까지 당하게 된다.

이후 철종 5년(1854)에 완전히 개간되어 팔대장림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며 이때 개간된 농지는 신록사에 복속되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하천부지와 사유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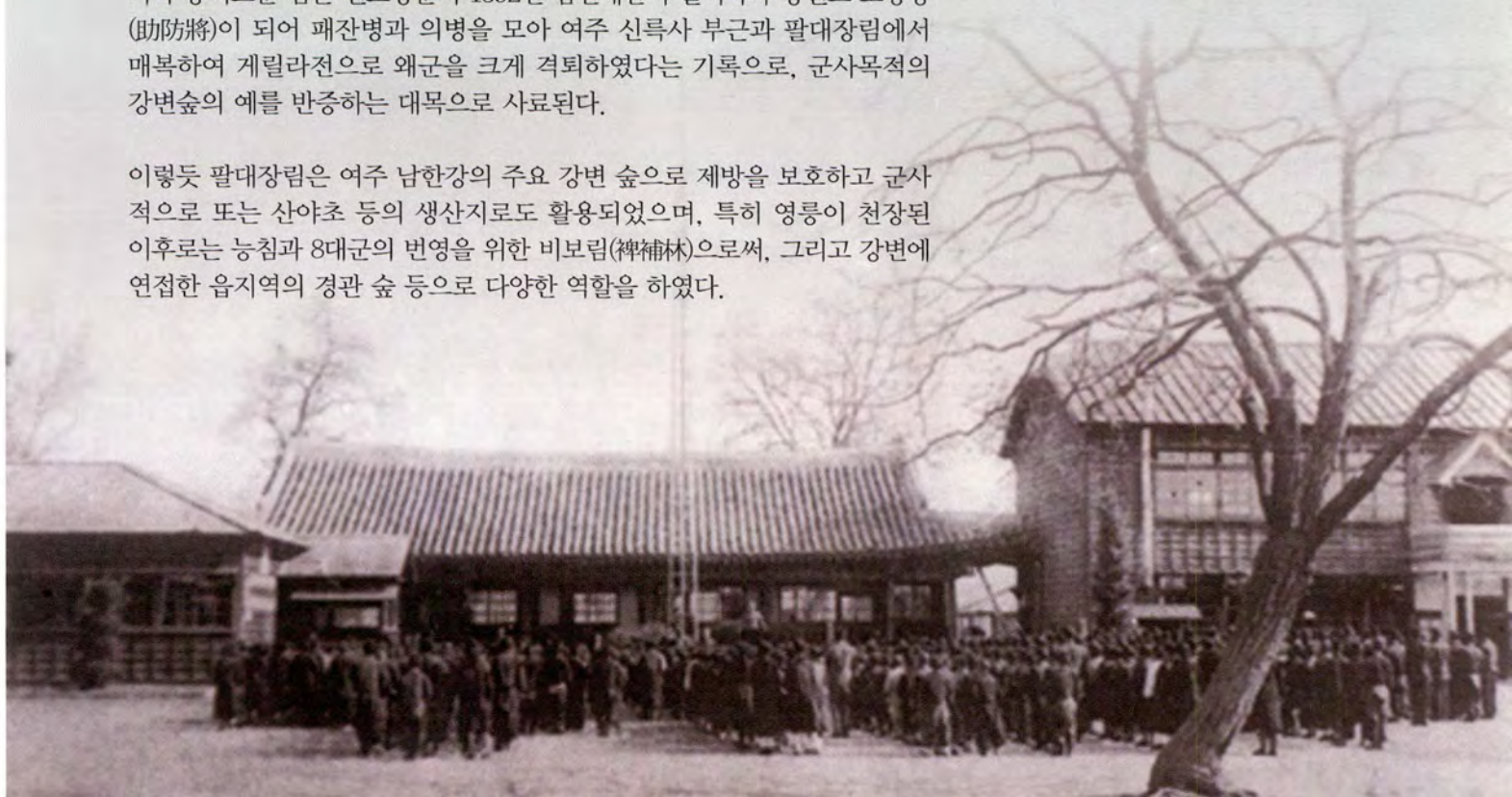
팔대장림(八大長林)의 역사와 문화

팔대장림은 여주팔경 중 제6경으로 꼽히며 청심루(淸心樓)와 함께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였다. 청심루는 예로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유람을 하며 글을 남겼는데 한때 목은 이색(1328~1396), 포은 정몽주(1337~1392)를 비롯한 약 40여명의 시판(詩板)이 청심루에 걸려 있었다고 한다.

팔대장림과 관련한 역사적 기록으로는 세종대왕이 팔대 숲에서 점심을 드셨다(세종 3년)는 내용과, 특히 정조대왕이 청심루에 나아가 관찰사 정창성(鄭昌聖)에게 명하여 수군사열을 행했다는 내용이 있으며, 그밖에 영조, 숙종, 성종 등이 여주를 찾아 참배한 기록을 볼 때 팔대장림과 청심루를 찾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원호장군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강원도 조방장(助防將)이 되어 패잔병과 의병을 모아 여주 신록사 부근과 팔대장림에서 매복하여 게릴라전으로 왜군을 크게 격퇴하였다는 기록으로, 군사목적의 강변숲의 예를 반증하는 대목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팔대장림은 여주 남한강의 주요 강변 숲으로 제방을 보호하고 군사적으로 또는 산야초 등의 생산지로도 활용되었으며, 특히 영릉이 천장된 이후로는 능침과 8대군의 변영을 위한 비보림(裨補林)으로써, 그리고 강변에 연접한 읍지역의 경관 숲 등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였다.





팔대장림(八大長林)의 복원 및 보전방안 팔대장림 지역의 규제문제

현재 팔대장림 지역은 팔당호유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 복잡한 환경 규제가 중첩되어 있으며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팔대장림의 복원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법규와 규제가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팔대장림의 경계 및 범위, 식재방법과 규모 등 일련의 복원과정에서 환경규제 및 토지이용규제, 상위계획 등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복원과정 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 동부권지역이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이고 문화 생태적인 팔대장림의 복원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심루 및 양섬과 연계한 팔대장림의 복원

팔대장림은 청심루와 양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함께 복원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생태적으로 이들과 괴리된 팔대장림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다. 팔대장림의 복원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경관 숲의 복원 이자 문화생태 자원의 복원이라 할 때 더욱 그러하다.

청심루터로 확인되는 지역이 현재 여주시청 주변이므로 향후 여주시 청사를 옮겨갈 경우 이와 연계하여 청사이전 부지에 청심루를 복원 하고, 양섬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팔대장림과 연계한다면 완벽한 복원 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결과 영릉과 양섬, 팔대장림, 청심루, 영월루, 신록사, 연양리 강변 숲 및 수생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어우러 지는 문화생태 벨트를 연출할 것이다.

역사와 문화생태 중심적인 복원

팔대장림과 함께 청심루와 양섬의 복원은 역사와 문화생태적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생태 또는 친환경의 명분으로 추진 되는 여타의 복원사업이 인간 중심으로 사고한 결과 자연생태적인 본래의 모습과 문화생태 및 역사적인 현장을 복원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목격한다. 따라서 팔대장림의 복원이 단순한 경관 연출을 위한 토목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팔대장림의 복원은 단순히 강변 숲을 복원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팔대장림이 청심루와 양섬 등 주변경관과 함께 문화생태적으로 복원 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커다란 성과가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오직 여주의 팔대장림만이 전해지고 있으므로 팔대장림을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수도권 지역과 국가적으로도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안동희

“

팔대장림의 복원은
단순하게 강변 숲을 복원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





● ● ●
문화는 미래의
역동적 삶이다

여주 문화의 꽃을 활짝 피게 하는
김 문 영 문화원장

문화는 생명이다

세월호 애도 속에서

눈을 두는 곳마다 총 천연색 꽃들 일색이다. 꽃을 떠나면 이내 연두색의 늪에 빠져든다. 세상은 온통 희망의 연두색이 한창인데,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세월호의 비보를 접한 온 국민이 우울증에 빠져 허덕이는 날들엔 울긋불긋 꽃들, 연두색 나무와 풀들조차 애도의 슬픔에 젖는다.

평소 활짝 웃기를 잘하던 김문영(67) 여주문화원장의 얼굴은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온 국민이 슬픔으로 차 있는데 인터뷰를 할 수 없다는 그를 겨우 설득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김문영 원장은 자신도 젊은 시절에 외항선을 탔었다면서, 그래서 더욱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그의 멋진 수염은 한올한올 슬픔을 드리운 채 웃음기를 거두어 들였다. 기자와 문화원장은 차디찬 세월호에 갇힌 이들을 위한 애도로 한참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문화는 생명이다

여주문화원은 1970년에 창립되었다. 2011년 6월에 취임한 김문영 현 문화원장 아버지인 고 김윤선은 여주문화원 창립멤버이자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여주의 문화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 할 수 있다.

김문영 문화원장의 몸짓과 걸음걸이는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무척 활기차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여주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기찬 모습으로 동분서주 발품을 팔았다.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자 문화원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도 문화원장인 직책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작 직원들보다 앞장 서 뛰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사뭇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문화원장 취임 전에는 여주 문화에 안목이 그리 넓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재는 문화에 관련된 모든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미래 세대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게끔 문화원이 여주 발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문화는 생명이며 인류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각 시마다 문화원이 지역의 문화 창달에 앞장서듯 여주 문화원이 여주 문화의 중심축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제 역할이지요.” 문화는 생명이며 인류를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류사의 생명인 문화를 위해 혼신을 쏟고 있는 그가 참 멋있게 느껴졌다. 그동안 문화원의 분위기가 그리 밝지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문영 원장이 취임하면서 여주 문화원의 분위기는 몹시 밝아지고 회원도 많아졌으며 희망에 차 있다. 생명의 젖줄이 탱탱하게 넘쳐나는 활기를 느낄 수 있다.

시민들이 여주 문화의 주역

문화원은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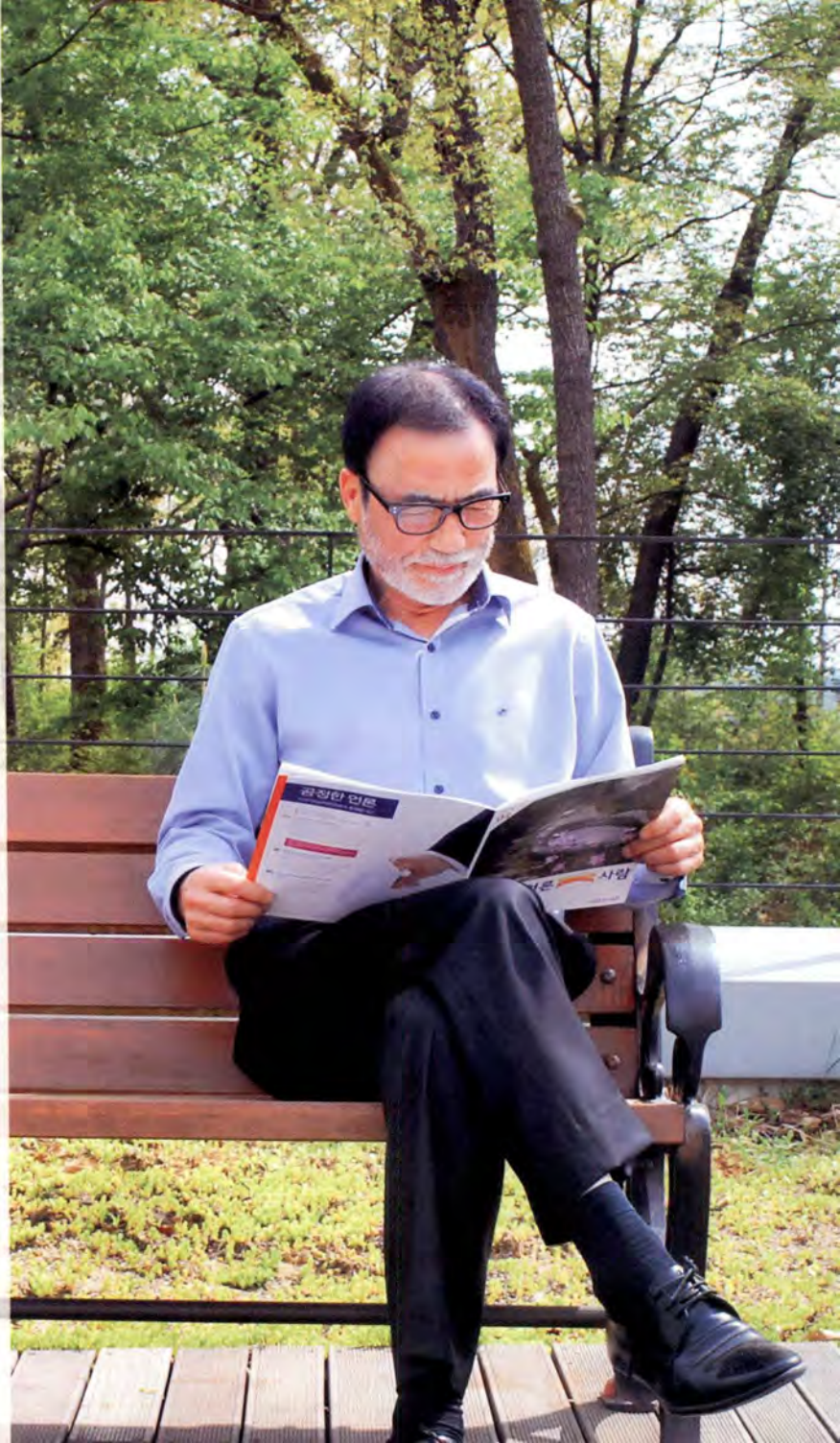
그러니 여주 문화원은 여주를 대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문화는 민족이나 사회구성원들이 만들어가는 삶의 총화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보고 미래를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문화원의 정체성입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고유문화와 향토사를 보존하고 보급하며 미래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존재하지요. 더 늦기 전에 지역사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보존하는 일이 문화원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문영 원장의 말속에 박힌 힘은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문화원의 재정적 부분은 안타깝지요. 문화원의 안정적인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예요. 지역 공무원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도 여주문화의 주역임에 자부심을 갖고 바람직한 문화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주에는 시민들에게 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미흡한데 문화원사를 빨리 건립해서 각종 문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자니 그가 얼마나 문화원을 아끼고 여주 문화를 사랑하는지가 절로 느껴졌다. 그는 대화 상대를 즐겁게 하는 힘을 지녔다. 그와 호쾌하게 대담하는 시간은 즐거움 그 자체였다. 그와의 대화가 끝날 때쯤 우리는 다시 세월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그가 전설적인 여주문화원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몸을 바로 세운 소나무를 보았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소나무는 흔들림 없이 곧고 듬직했다. 마치 김문영, 그를 보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 보아도 멋졌다.

유명은



여주에서 ‘진 짜’ 보물찾기

나에게도 그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여주는 그냥 스치는 도시다.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며 흘끔 내려다보던 고속도로 아래의 농촌풍경이 사실 여주의 전부였다.

아주 오래 전, 10대의 마지막을 그냥 보낼 수 없다며 홀로 떠났던 무전여행. 어느 시점엔가 분명 나는 여주의 한 마을에 있었다. 이장님의 배려로 마을회관에 묵기까지 했다. 기록되지 않은 그 날의 기억 속에 마을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걸 보면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절 걸으며 보았을 마을과 산과 들과 강 하나하나가 나와 여주를 먹지로 엮은 표지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주에 정착한 뒤 여주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찾아 다녔다. 시내 골목들은 물론 외곽의 작은 마을 꼬트머리까지 안 가본 마을이 없고, 안 밟아 본 도로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틈틈이 시간을 쪼개어 가며 남들 보기에 의미 없을지도 모르는 짓을 해 왔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여주라는 도시는 첫눈에 반하는 미인형 도시라기 보다 그 안에 감춰진 보물을 찾으며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속 깊은 도시였던 것이다.

흔히 알려진 여주의 명소들은 거의 남한강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 신흥사가 그렇고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도 그렇다. 영월루는 아예 강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어릴 적 배웠던 역사 속 혼암리 선사유적지 역시 강을 끼고 있다. 파사성은 천연의 요새인 남한강과 이어져 성벽이 연결되었다.

알고 보니 본토박이 여주 사람들에게 남한강은 계곡과 같은 존재였다. 외지인들이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이해

하는 일은 사실 너무 힘들었다. 4대강사업에 대한 생각은 그 차이의 극한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와 같은 외지인들에게 남한강은 여주의 보물이었던 반면, 여주 본토박이들에게 그것은 고작 규제였고 속박이기도 했다. 단, 그 이유가 오로지 ‘돈’으로 귀결되는 것은 큰 아쉬움이지만, 어쨌든 남한강은 미우나 고우나 여주에서 가장 잘 알려진 보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여주에서 10여년을 부대끼며 살아오다 보니 여주의 진짜 보물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잘 숨겨져 있었다. 마을마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는 전설과 우화들, 그 이야기들이 담긴 ‘추억’이라는 보따리를 가진 마을의 노인들, 그리고 그들만이 아는 신비의 길을 통해 이어지는 이야기 속 장소들이야말로 진짜 여주의 보물들이었다.

어느 순간 나에게는 인근 마을들을 다니며 어르신들 사이에 끼여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취미가 하나 더 생겨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다니며 간직하게 된 보물들이 어느새 수십 개나 모여 있었다. 몇 개는 꺼내어 공유하고 몇 개는 다듬는 중이다.

자, 이 글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도 자기가 사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시라. 여주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마을이 보이는가?

그렇지 않다면 마을의 노인들을 만나보시라. 그냥 지나치던 회관 앞 느티나무 한 그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알게 되면 앞으로 그 나무는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진짜 보물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걸 알고 너무 놀라지는 마시라.

강수천



‘조금 덜 일하고 적게 벌더라도 차라리 소비를 줄이고 휴식을 더 길게 갖자’가 내 삶의 모토가 된지는 한 참 됐다. 그래서 다니는 직장이 주 5일제가 되었을 때 참으로 행복했다. 그런 내게 특별한 토요일이 도래했다. 이름하여 ‘시티 투어’ . 문화원 조성문 사무국장님의 부탁도 아닌 협박도 아닌 거부할 수 없는 전화 한 통화에 동참하게 된 ‘시티 투어’ 는 여주문화원과 여주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방과 후 주말버스학교’ 활동으로 여주시내의 문화적, 역사적 장소를 투어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들과 떠나는 역사 속 여주여행

‘시티 투어’ 는 지난 5월 24일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여주지역 33개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학생들을 인솔하는 지원단으로 지난주까지 4회를 진행하며 느낀 소회는 ‘아, 힘들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 체력 관리를 더 많이 할 걸...’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아직 한 여름은 아니지만 햇살은 따갑고 매회 50명에서 70명을 웃도는 초등학교생들의 안전에 신경을 집중해서 인지 오후에 집에 돌아오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

아이들과의 여정을 따라가면 우암 송시열 선생의 영정을 모신 사당인 ‘대묘사’ 를 시작으로 1945년 화재로 불타 없어진 ‘청심루’ 터를 돌아 영조의 두 번째 왕비인 정순왕후의 생가터(지금의 강조 산소 부근)를 지나 여주에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 감리교회 터(지금의 중앙통 중앙프라자 건물)를 만난다. 다시 골목을 들어가면 천주교순교자 순교터와 조선시대 큰 불로 위기에 처한 여주 백성들을 위해 수백석의 식량과 돈을 풀어 도움을 주었던 김병기의 공적을 기리는 비가 세워져 있던 비각거리(지금엔 영월루 옆쪽으로 비석들은 옮겨져 있다)를 지난다.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가장 자극하는 수여선 역전터(지금의

시민회관)와 국사시간 배워 이름은 익숙하나 내용이 희미한 ‘이괄의 난’ 으로 유명한 이괄의 집터를 마지막으로 시내에서의 시간 여행은 끝난다.

사실 원래 기획대로라면 ‘영월루’ (옛 관아의 정문)와 ‘마암’ (영월루 아래 바위에 이인응이 새긴 글씨)도 둘러봐야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엔겐 안전 문제가 뒤따라 코스에서 생략되었다. 도시 속에 숨어있던 문화적, 역사적 장소와 그에 얽힌 사연들은 문화원 조성문 국장님과 여주의제21 안동희 국장님이 각 지점에서 아이들에게 친절히 해설해 준다.

애초 이 프로그램을 접했을 때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지역 역사를 생생히 보고 들겠다는 기대가 없지 않았다.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는 지역만의 역사와 살아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증명해줄 유적들. 어른들이 먼저 배우고 아이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일을 바로 직접 아이들에게 전해주니 얼마나 뜻 깊으냐 싶었다.

그러나 매회 투어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수가 너무 많다. 당연히 집중력은 떨어지고 산만하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길을 걷다 문득 오늘날의 기억을 떠올려 수여선 역전터를 그리고 청심루터를 기억해 주길 바란다.

또 다른 아쉬움은 유형의 유물이 없다는 것이다. 유홍준은 ‘건축은 답사의 몸통’ 이라고 했다. 그 몸통이 사라졌다. 그나마 옛 여주 관아의 정문격인 ‘영월루’ 를 지금의 자리로 옮긴 1925년 당시 신현태 여주 군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청심루는 1945년 불타 없어졌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주춧돌 10여개도 여주초교 증축 와중에 없어졌다. 목조 건물은 화재에 취약하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경복궁도 몇 번의 화재와 침략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도 했으나 복원된 것이다. 청심루도 주춧돌 10개면 충분히 복원 가능했을 텐데 복원 의지가 없던 당시 정치인들에게 약간 화가 나기도 한다. 사진이 존재하니 지금이라도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에게 알량한 돌비석 하나 보여주며 이곳이 내로라하는 문인들이 다녀간 청심루가 있던 터라고 얘기하는 서글픔이란....!

김금자

노을이 짙게 산 아래로 숨어 버리자 금세 창밖은 어두워졌다. 창문을 여니 개구리 소리가 와글와글 어둠의 정적을 깨운다. 사람이 저리도 와글거리면 그 소란스러움 때문에 진저리를 치련만 개구리 소리는 가슴마저 활랑거리게 한다.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자니 어렸을 적, 친구들과 함께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기억이 새롭다. 학교에서 집으로 오자마자 우리들은 뜨거운 땀별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실컷 뛰어놀다가 누군가가

개구락지 우는 밤

“야, 우리 개구락지 잡으러 가자.” 하고 말하면 순간 모두가 여지없이 하던 짓을 멈추었다. 구슬치기를 하던 친구들은 구슬을 줍는 둥 마는 둥 일어섰고, 딱지치기를 하던 아이들은 딱지를 뽕개치고 개구리 잡기 놀이로 금세 돌아섰다.

아이들은 각자 어디선가 주운 긴 막대기를 하나씩 손에 들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줄을 맞춰 개구리 행진을 했다. 마을을 벗어나 밭둑, 논둑에 다다른 친구들은 옷자란 풀들을 헤치며 막대기를 탁탁 두들겨 댔다. 그러면 풀숲에 숨어있던 개구리들이 놀라 펄쩍 펄쩍 뛰어 올랐다.

개구리를 본 누군가 “개구락지다.” 소리치면 여기저기서 막대기를 휘둘러 개구리를 후려했다. 막대기에 맞아 네 다리를 쭉 펼친 개구리를 통쾌한 표정으로 잡아들고 자랑 삼아 웃어대던 친구들. 그 개구리들을 구워 먹었는지, 아니면 삶아 먹었는지는 기억에 없다. 아마도 개구리를 잡는 재미로 끝나지 않았나 싶다.

지금 생각하면 생명에 대한 학대, 혹은 잔인함이라 할 수 있겠으나 어렸을 적에는 개구리 잡는 것이 놀이 외엔 별것 아니었다. 아직 생명존중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이기도 하였거니와 밖에서 어울려 놀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이 물장구치기, 송사리·울챙이·매뚜기·개구리 잡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산에 누가



먼저 올라가나 등 자연과 더불어 하는 놀이었으니 개구리 잡는 것은 자연스런 놀이의 행위일 뿐이었다.

개구리 잡기도 싫증나면 누군가 약속처럼 놀이를 제안했다.

“우리 반지산에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그러면 친구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산을 향해 내달렸다. 어렸을 적, 우리 동네엔 반지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었다. 왜 반지산이라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교가에도 ‘반지산 아침 햇살 정기를 타고~’ 나오는 산이다.

나라고 별 수가 있는 건 아니었다. 동네에 워낙 여자 아이들이 없고 남자 아이들만 득시글대던 터여서 나는 남자 아이들과 다름없이 놀았다. 남자아이들과 딱지치기는 기본이었고, 구슬치기는 거의 달인 경지에 이르러 남자 아이들이 나와 구슬치기 하기를 겁낼 정도였다. 주로 남자들이 하는 전쟁놀이, 오징어진, 평택진 등 몸으로 밀치는 것들도 겁 없이 덤벼들어 놀던 터라 산에 오르는 것쯤은 누워 식은 죽 먹기였다.

반지산 꼭대기에는 산을 깎아지른 벼랑이 있었다. 반지산은 돌산이었기 때문에 돌을 캐기 위해 산을 깎았기 때문에 생긴 벼랑이었다. 산꼭대기에 올라 바짝 얹드려 잘려나간 돌산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니 현기증이 일었다. 한참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누군가가 “산을 내려가자.” 소리쳤다. 그러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벌떡 일어나 산을 내려가곤 했다.

나는 산에 올라가는 것은 늘 남자 아이들보다 앞장서서 씩씩하게 올라갔다. 하지만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오자면 왜 그리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는지, 힘들다고 종알종알 거리면서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남자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오른 듯하다.

그렇게 개구리 소리는 어릴 적 추억으로 나를 끌어 올려 스산함을 정화시켰다. 어둠이 짙어지자 개구리 소리는 울림통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더욱 소란스럽다. 개구리들의 수다인 소란스러움이 정겨움으로 바람결에 밀려온다. 온통 소음뿐인 세상에서 소음으로 들리지 않는 소리는 개구리 소리, 새소리, 물소리 등 자연이 주는 소리뿐이 아닌가 한다. 아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목소리 또한 정겨움이라.

한동안 개구리 소리를 듣다가 창문을 닫으며 돌아섰다. 갑자기 들이닥친 고요함에 순간, 등이 서늘해졌다. 친근했던 그 무엇으로부터 갑자기 멀어진 듯한 소외감. 나는 얼른 다시 창문을 열었다. 와글거리는 개구리 소리. 간잔지런 떨리는 눈까풀 위로 애잔한 바람 한줄기가 지나간다. 먼지보다 더 미세한 슬픔과 공존하는 내 안의 내가 나를 바라본다. 어둠은 바람의 옆구리에서 세차게 몰아친다. 개구락지 소리를 들으며 잠들던 어린 날의 내가 저만치서 손을 흔드는 듯 하다.

유명은

어쩌면 그 모든 일이
우리 세대의 일이란 생각도 든다.
꼭 지켜야 할 것과
다시 세워져야 할 것들
구분하는 일 말이다.
세월이 지나면
지금도 옛날이 될 테니.....!

- 굶주린 영혼에 대한 동양적 은유(oriental metaphor)

예언자 칼릴 지브란(Khalil Gibran)

루브난(Lubnan)은 높은 산에 쌓인 눈처럼 '순수한 흰색' 또는 '신의 심장'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레바논(Lebanon)이라는 나라이름으로 익숙하다. '백향목의 나라 레바논'과 '소나무의 나라 코리아'는 민족의 흥망성쇠와 역경을 극복해내는 고난의 역사가 유사하다.

아담이 실낙원 할 때 세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 나왔는데,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 그리고 백향목이 그것이다. 레바논 국기의 한 가운데서 나무의 왕 백향목은 굳건한 자태와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백향목과 소나무는 같은 과로 두 나라 민족의 사랑을 받는다는 점에서 닮은꼴이 있다.

레바논의 선조 고대 페니키아는 도시국가를 건설한 이후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삼고 해상무역을 제패하였으며 찬란한 지중해 문화를 꽃피웠다. 페니키아의 고대도시 비블로스는 바이블(Bible)의 어원인 비블리온(Biblion)에서 나왔으며, 알파벳 문자의 기원이 되는 페니키아 문자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페니키아의 어원인 '페크'는 붉은 자주색을 뜻하며, 지중해에 서식하는 소라에서 추출한 염료로 금보다 비싼 부의 상징이었다. 레바논은 하얀색 양젖과 쿠르넷 사우다 산맥의 백설처럼 희다는 뜻으로 '라반'에서 유래하며 '논'은 색깔을 의미한다. 레바논은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우리민족을 일컫던 '백의민족'이라는 표현을 나라이름으로 쓰고 있는 셈이다.

한반도가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외세에 시달렸다면, 페니키아의 운명도 지리적인 요충지로 외세의 이해에 좌우되었다. 로마의 지배하에 들면서 페니키아 땅에는 수많은 로마신전이 지어졌으며, 그리스도교의 전파에 이어 아랍의 패권으로 이슬람 문화가 이식되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지배 이후에는 시리아와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고 194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다. 그러나 신생국 이스라엘과의 중동전에 휘말린데 이어 1975년 민족내부의 모순으로 촉발된 레바논 내전은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침과 내전 모두 우리와 닮은꼴이다.

페니키아의 후에 레바논의 역사를 백향목이 목도 하였다면, 소나무는 단군의 후에 코리아의 부침과 영화를 지켜보았다.

Khalil
Gibran



칼릴 지브란이 태어난 페니키아 레바논의 브샤레(Bsharre)는 백향목의 고향이자 그가 유년기를 보낸 영혼의 성지이다. 수에즈운하가 개통되자 동서양의 실크로드를 누비던 카라반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근대 자본질서로 세계가 재편되면서 중동의 민초들은 미국과 프랑스 등지로 이민의 행렬이 이어지게 된다. 칼릴 지브란 역시 집안이 기울자 12살 때 어머니와 함께 미국 보스턴으로 떠난다. 이후 지브란은 귀국과 미국행을 반복하며 아랍과 서구, 이슬람과 기독교, 페니키아의 고대 예언자의 세계와 현대문명의 이질성 등 동서양을 넘나드는 문화적 유랑 길에 오르게 된다. 예언자는 타고르의 기탄잘리와 함께 동양을 대표하는 영혼의 노래이다.

기탄잘리가 신에게 바쳐지는 노래라면, 예언자는 인간의 영혼에 바쳐지는 송가이다. 예언자는 이중의 언어, 즉 언어의 듀얼리티(Duality)로써 이중성과 쌍대성 언어를 사용하여 이원적 변증법으로 구현되며 최종적으로 우주에 귀결된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아이와 어른, 죄와 벌, 이성과 열정 등,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언어의 대비는 이중적이며 이원적인 듯이 보이지만, 칼릴 지브란은 최종적으로 우주적이며 신의 영역에 융화되는 삶의 총화로 그 귀결을 가져간다.

예언자는 라즈니쉬의 말처럼 ‘그가 쓴 것이 아닌 그를 통해 쓰여진 것’이다. 예언자의 전체 28장은 첫 장과 마지막 이별의 장을 제외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삶을 관통하는 26개의 명제를, 동양적 은유로써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고 있다.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를 통해 굶주린 영혼에게 주는 메시지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메타포에 가려진 우주적 메시지를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이 칼릴 지브란과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오쇼 라즈니, 내가 사랑한 책들)

라즈니쉬가 영국인들이 배우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시적인 감수성’을 말한다.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셰익스피어를 가진 영국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내게는, 칼릴 지브란의 아랍어와 인도 벵갈어의 시적인 감수성이 메타포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밝히는 말로 들린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아주 작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위대함에

견주어 보면

[칼릴 지브란, 1922, 4, 28.]

이러한 평가를 의식한 것일까?, 칼릴 지브란은 위와 같은 말을 남겨 놓았다.

“칼릴 지브란은 나를 똥간에 빠진데서 이끌어냈다. 60년 쌓아온 모래탑은 와르르 무너졌다. 누가 꼭 일으켜 주어야만 될 것 같은데, 조금 부족만 해주면 꼭 일어설 것 같은데, 아무도 오지 않았다. 칼릴 지브란은 내가 빠진 밑바닥, 지옥 바닥에 내려와서 따뜻한 손으로 일으켜 거기서도 오히려 일어설 수 있게 함으로써 내 정신을 한층 깊게 하여 주었다.”

[함석헌 전집16, p213]

예언자를 접한 함석헌의 감격이다. 예언자를 한국에 맨 처음 소개한 분은 함석헌 선생이다.

시인은 시를 쓸 때 독자에게 깨달음을 구하지 않는다.

다만, 시인은 도구로써의 언어를 통해 우주로 향하는 길의 나침을 제시할 뿐이다. 예언자를 읽을 때면 더욱 그렇다.

원부의 답교놀이

답교놀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고려시대부터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답교놀이는 정월 대보름 밤에 상반(常班)과 남·여의 구별 없이
한해의 액(厄)을 방지하기 위해 다리(橋)를 밟으면서 놀던 것으로,
춤추고 술을 마시며 시(詩)를 읊는 등 무속성(巫俗性)과 오락성(娛樂性)이
복합된 정취 있는 원부리의 민속놀이다.

답교놀이의 진행과정은, 정월 대보름 달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모두가 달을 향해 「만월이요! 만월이요!」 하는 함성과 함께 햇불을 흔들며
환호와 큰절을 올리면서 그해의 소원성취를 빈다.

선소리(立場)의 놀량, 앞산타령과 뒷산타령, 잣은방아타령에 맞추어
흥을 돋우고 무동(舞童)춤과 왜장녀(몸집이 크고 부끄러움이 없는 여자)의
패락춤을 추며 다리를 왕복하면서 논다.

답교놀이가 끝나면 밝은 달빛 아래서 남녀노소가 마음껏 뒤풀이를 즐긴다.



면벽 수행하는 선승 같은 작가

권혁용



10여 년 전에 찾아갔던 길을 두 번이나 물어 겨우 도착했다.
싸리산 자락 논밭 사이에 납작한 집에서 두 부부는
조각도를 잡고 들풀처럼 살고 있었다.
커다란 향나무 한그루가 집을 지키고
잘 짓지도 못하는 황구와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내외의 벗이란다.
마당 구석에 마구 자란 개똥쑥은 친구의 발에 묻어와서
씨가 퍼진 것이라며 손주를 자랑하듯 자상히 일러주었다.

유행 따라 수익 따라 이 것 저 것 바꾸어 가며
대량으로 찍어내서 마구마구 내다 파는 이 판에서
청자 투각 한 가지만 고집하며 고집스레 외길을 걷고 있다.
두주불사의 술꾼이었으나 수술 후유증으로
몸에서 받아주질 못한다며 멋쩍게 웃어보였다.

여주의 도자기가 위기라고 다들 아우성이다.
오학동 일대를 돌아보노라면 굴뚝만 녹슨 채로 서 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한 요장들이 많이 보인다.
중년의 도공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 하노라며
어색해 하는 모습도 꽤 흔한 장면이 되었다.
슬프다. 그러나 현실이다.

화두를 잡고 면벽 수행하는 선승 같은 자세로
무념무욕의 상태에서 작업에 열중하는
권혁용 작가의 용맹정진에 저절로 고개 숙여진다.
침체일로라 외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땅의 젊은 작가들이
보고 배웠으면 한다.

권혁용의 작품세계가 아닌
권혁용의 정신과 삶의 행로를...



세종대왕과 여주

여주문화원 사무국장 조성문

들어가며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다. 막연한 관념의 세계에 있던 문화와 역사가 실생활에서 살아 움직이는 시대요, 문화와 역사가 돈이 되는 시대다. 아름다운 문화와 찬란한 역사가 숨 쉬는 도시, 여주시도 문화와 역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우려왔다. 그러나 여주의 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여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역사적 콘텐츠의 우수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가 펼치는 문화의 마당에 즐거움이 없으며 여주가 보여주는 역사의 갈피에 감동이 없다.

이제껏 여주의 문화와 역사의 전개는 평면적이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의 단순 전시에 불과했다. 최근들어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덧붙여지기는 하였으나 감성소비, 체험소비, 가치소비, 스토리소비로 변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주의 문화와 역사의 표현은 잡화상식이었다. 오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지리한 나열에 집착했다. 문화와 역사의 패턴이 이성적인 것에서 감성적인 것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여주만의 유일한 감성의 창출에 실패했다.

이에 여주만이 할 수 있는, 여주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호응하고 여주를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여주 지역경제의 활로를 열고자 한다.

① 세종대왕의 외가

여주는 조선 초기까지 여흥이라는 지명으로 불리던 곳으로 여흥 민씨의 관향으로 알려져 있다. 여주의 상류에는 오랜 세월 여강의 물줄기를 순화시키며 여주를 지켜 낸 마암이라는 바위가 있다. 마암 아래 굴속에서 여흥 민씨의 시조인 민칭도가 태어났다고 여흥 민씨들은 믿고 있다. 민칭도의 11세손인 문도공 민제(閔霽)의 둘째딸이 왕비가 되었다. 조선 3대 임금 태종의 비이자 세종대왕의 어머니인 원경왕후다. 1401년(태종 1년)에 여흥군은 여흥부로 승격되었다. 원경왕후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격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다. 내향이란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고장을 말한다. 이후 여주는 여흥 민씨의 세거지이자 세종대왕의 외가가 있는 지역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흥미의 대상이 되었다.

여주에는 마암에 관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날 한 어옹(漁翁)이 여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낚싯대를 물에 담그고 물 건너편의 아름다운 경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런데 멀리서 손짓하며 달려오는 한 여인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무척 다급한 듯 사공을 부르고 있었다. 마침 사공이 없던 터라 어옹은 낚시를 거두고 배에 올랐다. 강을 반쯤 건넌을 때 여인의 비명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뒤쪽에서 험상궂은 사나이가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어옹이 재빠르게 건너가 그녀를 배에 태우려 할 때 뇌성벽력이 치며 바람이 불었다. 그와 함께 어디서인지 누런 말과 검은 말이 나타났다. 여인은 재빠르게 황마(黃馬)에 오르고 뒤이어 달려온 사나이는 여마(驪馬)에 올랐다. 하늘엔 자옥한 물보라가 일고 어옹은 흔들리는 배를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잠시 후 바람은 멎고 물결이 가라앉자 그 광경에 놀란 어옹이 말들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니 여인과 사나이는 보이지 않고 커다란 바위의 자태만이 우뚝 서 있을 뿐이었다.

이때부터 그 바위를 황마와 여마가 나왔다 하여 마암(馬巖)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 고장의 지명도 황려(黃驪)라고 불렀다고 한다.

② 방문

조선 초기 강무(講武)는 군사의 조련과 사냥을 겸한 무예연습의 장으로서 임금에게 필수적인 일이었다. 이 강무를 위해 세종대왕은 여주를 3번이나 방문하였다.

- ㉠ 1417년(태종17) 9월 28일
임금이 근기에서 강무하다

임금이 세자와 (두 대군)을 거느리고 근기(近畿)에서 강무(講武)하고, 저녁에 이포(梨浦)에서 머물렀다.

- ㉡ 1419년(세종1) 11월 10일
여흥 금당천가에서 잤는데, 도성에 남은 대신들이 윤곤을 보내 문안하다

두 임금이 연로(沿路)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안장역(安將驛) 앞 냇가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조치가 <두 임금을> 맞아서 알현하였다. 어가가 여흥(驪興) 금당천(金堂川) 가에 도착하여 잤는데, 도성에 머물러 있던 재추가 이조 판서 윤곤(尹坤)을 보내어 문안하고 술과 과일을 올렸으며, 황해도 병마절제사도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다.

- ㉢ 1421년(세종3년) 2월 27일
여흥 팔대숲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다

여흥(驪興) 팔대숲[八代叢]에서 점심을 먹는데 술을 차리니, 효령 대군 이보·우의정 이원 등이 모시었다. 거가가 원주(原州) 금당천(金堂川)에 이르매, 강원도 도관찰사 목진공(睦進恭)·경력 유사근(柳士根)·원주 목사 차지남(車指南)·판관 김사정(金士稔)이 평복으로 알현하니, 병조에서 제하기를, “대가(大駕)가 순행하여 지경에 임하시었는데, 공복(公服)으로서 와서 뵈지 않은 것은 매우 인신(人臣)으로서 임금을 공경하는 뜻을 잃었사오니, 바라옵건대, 그 죄과를 치죄하시어 후일을 경계하소서.” 하니, 상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진공(進恭)이 말과 궁시(弓矢)와 토산물을 상왕에게 바쳤다.

한편 여주목 관아에 있던 청심루(현 여주초등학교 자리)는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으나 1617년(광해군9) 여주목사 김용(金涌)이 중건하였다. 청심루 중건 이후 김용은 그의 문집에 ‘청심루는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행차하였던 곳. 公曰, 淸心樓 世宗大王之曾所臨御’이라는 기록을 남겨 세종대왕이 강무할 때에 청심루를 방문했음을 알게 해주었다.

③ 천릉

1446년(세종28) 3월 소현왕후가 수양대군 집에서 흥하였다. 왕비의 능침을 놓고 음양가가 불길하다고 말하자 세종대왕이 말했다.

“다른 곳에 복지(福地)를 얻는 것이 선영 곁에 장사하는 것만 하겠는가? 화복의 설(說)은 근심할 것이 아니다. 나도 나중에 마땅히 같이 장사하되 무덤은 같이 하고 실(室)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

무소불위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세종대왕은 왕비의 능을 그렇게 청하고 자신도 4년 뒤 그 자리에 묻혔다. 그러나 역사의 힘은 겸손한 자를 낮은 자리에 두지 않는 법이다. 1469년(예종1) 세종대왕릉은 여주로 옮겨온다. 한반도 최고의 명당자리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천장과 관련된 전설은 역사의 필연을 느끼게 한다.

우의정 이인손이 죽자 후손들은 좋은 자리를 골라 묘를 쓰게 되었다. 이때 산소 자리를 잡아준 지관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분을 만들지 말 것이며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이 불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하자 이인손의 후손들은 지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묘의 봉분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때마침 조정에서는 영릉 천장릉이 대두되어 각처에 지관을 풀어 명당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한지관이 명당을 찾아 능서면 왕대리에 오게 되었다. 때는 삼복더위 중이라 갑자기 천둥이 치고 사방이 어둡게 지면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지관은 나무 밑에서 젖은 옷을 걱정하며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소나기가 지나가고 주위가 밝아지자 건너편에 1기의 분묘가 바라다 보였다. 무심결에 분묘를 바라보는 순간 지관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몇 달을 두고 찾아 헤매던 명당자리였던 것이다. 주변산세와 지맥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니 앞에는 북성산이 신하부복형(臣下俯伏形)의 모습으로 었디어 있고 작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있는 것이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이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의 대명당 자리였다. 이에 지관은 지도에다 명당의 위치와 방위를 표시한 다음 쏜살같이 대궐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 대모산(大母山;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세종대왕릉이 옮겨오게 되었다. 한편 이인손의 후손들은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니 성분립비(成墳立碑) 하지 말라던 지관의 말을 생각해내곤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나라의 명이 지엄한 지라 하는 수 없이 이인손의 묘를 옮기기 위해 산소를 파헤치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 비기(秘記)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연(薦)을 날려 연이 떨어진 자리에 이장하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비기의 예언대로 연을 높이 날린 후 연줄을 끊으니 바람을 타고 날아간 연은 북성산 기슭의 연주리(延住里)에 떨어졌다. 이처럼 이인손은 연줄이 떨어진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연주리에 묻혀있다. 연주리는 지금의 능서면 신지1리이다.

④ 원찰 신록사

여강가의 천년 고찰 신록사는 세종대왕의 원찰이 되면서 그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원찰(願刹)이란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빌기 위해 지어진 사찰이다. 이런 까닭에 신록사 경내의 주불전은 대웅전이 아닌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바는 극락보전으로 되어있다. 극락은 불교도의 이상향으로 고통이 전혀 없고 즐거움만 있는 불국토다. 극락전에는 극락의 주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협시보살로서 봉안되어있다. 관세음보살은 지혜로써 중생들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며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광명을 모든 중생들에게 비추어 축생·지옥·수라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며 끝없는 힘을 얻게 하는 보살이다. 이상향인 극락이 서쪽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서쪽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통 극락전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나 신록사의 극락보전은 임금의 자리를 상징하듯 남향을 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동국여지승람』과 『조계종 본말사지』를 보면 ‘예종 원년 광주 대모산에 있던 영릉을 여주로 이장하면서 세조임금의 유지를 받들어 원찰을 신축하려 했다.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가 한명회와 한계희에게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게 하자 두 사람은 능침 주변에 절을 세울 마땅한 장소가 없고 멀지 않은 곳에 벽절 또는 신록사라 부르는 고찰이 있는데 고현들이 노닐었던 흔적이 완연하니 이를 중수하여 원찰을 삼는 것이 좋을 듯 하다고 복명하였다. 정희왕후는 이 말을 좇아 옛 건물을 고치기도 하고 새 건물을 짓기도 하여 2백 여 칸의 대가람을 완성했다. 건물이 완성된 뒤에 정희왕후는 유사에게 명하여 신록사를 보은사(報恩寺)로 고치고 영릉의 원찰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록사는 세종대왕의 원찰이 되기 전부터 세종대왕과 인연을 맺고 있었다.

세종 22년 8월 13일. 여흥부의 신록사를 중수하도록 명하였으니 여흥부 원군 민제의 화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세종 29년 7월 9일. ‘여흥 신록사에는 문도공(민제)의 영정을 모셨는데 의지없는 잠승들이 잘 수호하지 못하여 형편없이 되었다기에 전라도 장성 백암사의 중 학몽(學蒙)을 들어가 살게 하였으니 잘 안접시켜 주게 하라.’ 하였다.

신록사는 세종대왕의 외할아버지인 민제의 화상이 봉안되어 있었고 세종대왕의 원찰이라는 점에서 조선 중기 이후까지 여흥 민씨들의 종회 장소로 자주 이용되었다.

⑤ 지명 여주

여주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시기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 1469년(예종1) 3월 6일

세종 장헌 대왕과 소헌 왕후를 여흥 새 능으로 옮겨 안장하다

㉡ 1469년(예종1) 8월 8일

천녕현을 여흥부에 합하여 목(牧)으로 승격하고, 목사와 판관을 두게 하다

㉢ 1469년(예종1) 8월 18일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여흥부(驪興府)는 이미 목(牧)으로 높였으니, 청컨대 여주(驪州)로 개호(改號)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처럼 여주는 세종대왕의 능침이 옮겨 오면서 종3품이 다스리는 부(府)에서 정3품 당상관이 다스리는 목(牧)으로 격이 높아졌고 여주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⑥ 옛 기억들

세종대왕이 여주와 맺은 인연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고 후대 임금과 여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 1471년(성종 2) 10월 10일

임금이 영릉(英陵)에 배알(拜謁)함으로 인하여 여주(驪州)에 거둥하다.
해가 뜰 무렵에 임금이 능소(陵所)에 나아가서 제사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 1490년(성종 21) 윤9월 15일

임금이 영릉(英陵)에 나아가 친히 제사하고 정승들에게 전교하다.
“어제 뇌성과 비가 대단하여 제사를 행하지 못할까 저어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활짝 개여 제사를 행하였으니, 내 마음의 기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 1528년(중종 23) 10월 15일

관계자와 여주·이천 백성에게 상을 내리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진제하러 한 지 20여 년인데 이제 비로소 거행할 수 있었고, 또 음우(陰雨)를 염려하였는데 이제 마침 청명(淸明)하여 제사하는 일을 잘 거행 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다.

㉤ 1688년(숙종 14) 2월 28일

영릉(寧陵)에 제사지내고 영릉(英陵)을 전알하다
임금이 이천(利川)에서 새벽에 떠나 한낮에 영릉(寧陵)에 이르러 제사를 지내고 길을 돌아 영릉(英陵)을 전알(展謁)하고 돌아와 이천에 머물렀다.

㉥ 1730년(영조 6) 2월 25일

여주 영릉에 행행하다
임금이 여주(驪州) 영릉(寧陵)에 행행하였다. (이때 英陵도 함께 배알하였다.)

㉦ 1779년(정조 3) 8월 5일

영릉에 전배하고 능 주위를 살피다

영릉(寧陵)과 영릉(英陵)에 전알(展謁)하였다. 여주(驪州)에 머물러 먼저 영릉(寧陵)에 나가 전배(展拜)하고 의식대로 작헌례(胙獻禮)를 행하였다.

능서면 오계리에는 임금들이 능행차 때 이용한 능행길이 남아있다. 임금의 행차가 있기 전에 길을 쓸고 정비했던 추억들이 지금도 전해진다. 흥천면 효지리에서는 세종대왕 천릉시에 건설되었다는 억억교가 발굴되었고 능서면 번도5리 42번 국도 옛길 가에는 세종대왕릉을 향해 절하던 망배단의 흔적이 있어 지난 일들을 짐작하게 한다.

나가며

여주는 세종대왕의 어머니의 땅이다. 그러기에 세종대왕의 뼈와 살의 반은 여주의 것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주와 인연을 맺은 세종대왕은 생전에 여주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 545년 동안 여주의 품속에서 영면하고 있다. 세종대왕과 여주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종대왕에 관한 일은 여주가 제일 잘 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여주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오랜 세월, 여주인의 가슴 속에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잡아 온 세종대왕은 여주인에게는 종교이자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다. 불과 40여년 전만해도 세종대왕을 기리는 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논길과 밭길을 따라 곱게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 영릉 참배를 위해 줄을 이어 모여들던 곳이 여주였다.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여주와 세종대왕의 문화와 역사적 관계가 우리 가슴 속에서 기억되어 밖으로 드러나는 날, 그것은 단순한 기억의 복원이 아니라 여주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세종대왕은 성공한 우리의 오래된 미래이기 때문이다.

2014년도 상반기 문화원 활동 소개

문화 사업

- 신년해맞이 행사 1/1
- 본두리 낙화놀이 2/15
- 춘계 문화유적답사 4/3 (경남 하동)
- 점봉초등학교 교사 특강 4/7
- 여성위원회 여강길 걷기 4/11
- 여강길 회원 특강 4/20
- 여민연구원과 업무협약 4/23
- 인문학 강좌 4/24 (개강, 매주 목요일)
- 여주교육청 주말버스학교 약정식 5/1
- 세종대왕 승모제전 5/15 (부대행사 취소)
- 여민연구원 시티투어 5/16
- 문화유산해설사 특강 5/19
- 어르신 문화학교 5/22 (개강, 매주 목요일)
- 문화원 A+@조 야유회 5/23
- 주말버스학교 5/24, 5/31, 6/4, 6/21, 6/28
- 여주교도소 특강 6/3

회의 개최

- 부원장회의 1/8, 3/13, 4/1, 5/28
- 이사회 1/20, 3/21, 6/5
- 자체감사 1/27
- 정기총회 2/11
- 이사 간담회 1/15, 1/17

2014년도 상반기 문화원 회원 경조사

경 사

- 3월 장영철 회원 딸 결혼
- 4월 안귀자 회원 딸 결혼
박병진 회원 아들 결혼
- 5월 김영길 이사 딸 결혼
남차현 회원 개업
- 6월 원경희 전 부원장 여주시장 당선
원옥희 회원 경기도의원 당선
김규창 회원 경기도의원 당선
김영자 회원 여주시의원 당선
윤희정 회원 여주시의원 당선
이상춘 회원 여주시의원 당선
이항진 회원 여주시의원 당선
이영옥 회원 여주시의원 당선
김창석 이사 세종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박복동 회원 성결교회 권사 취임

상 조

- 1월 엄애경 여성회장 어머니 별세
차상규 회원 어머니 별세
- 6월 윤정운 회원 시어머니 별세

| 상임고문 | 원용문, 김덕배, 박찬수

| 원 장 | 김문영

| 부 원 장 | 김태수, 박광우, 유인성, 정규명, 이병열

| 이 사 | 김순자, 김영길, 김윤기, 김정우, 김종성, 김창석, 박광재, 박병창, 박형섭, 성천훈, 안용호, 오병춘, 유덕후, 유인호, 윤경희, 이두연, 이용섭, 이정식, 이준필, 이혜숙, 전기중, 전호동, 정의채, 조은한, 주명덕, 지현우, 최병식, 한득현.

| 감 사 | 안동희, 박문신

| 여성위원회 | 회장 : 엄애경 / 부회장 : 김옥강, 심옥순 / 감사 : 나정희, 윤정윤 / 총무 : 안숙자
고순자, 김경옥, 김길환, 김남옥, 김동실, 김명식, 김명희, 김선자, 김순분, 김영석, 김은경, 김한숙, 김향란, 김혜숙, 김혜숙,
남상분, 남차현, 박미란, 박순이, 박영숙, 박정옥, 박정자, 박종순, 배순예, 서근옥, 서성숙, 성세연, 손현미, 송경숙, 신예연,
신음전, 안귀자, 안영복, 안중연, 양민자, 엄정민, 원유화, 유양숙, 유인호, 이정순, 이도연, 이미숙, 이승애, 이용남, 이정희,
이지영, 이홍숙, 임인재, 장수연, 장현익, 정계숙, 조문희, 조연비, 조진현, 최난이, 최미선, 최옥주, 최향옥, 함인자, 황명자.

| 회 원 | 강대준, 강래희, 강영실, 강윤철, 강혜옥, 경범수, 정치호, 광상교, 광순희, 광윤식, 광현용, 광호진, 구분만, 권동섭, 권미양,
권영옥, 권오성, 권오재, 권오준, 권오중, 권오천, 권재완, 권진용, 권지영, 권혁환, 길병동, 김 욱, 김경근, 김경희, 김계용,
김광섭, 김귀순, 김규배, 김규상, 김규창, 김근수, 김근식, 김기동, 김기환, 김남화, 김대진, 김덕하, 김명옥, 김문환, 김미숙,
김미진, 김병철, 김병훈, 김삼화, 김상경, 김상국, 김상민, 김선준, 김성호, 김성환, 김소희, 김숙성, 김순옥, 김양희, 김연자,
김영구, 김영기,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윤희, 김용환, 김은희, 김의숙, 김재영, 김재용, 김제인, 김재환, 김정구, 김준기,
김창환, 김태균, 김태일, 김태환, 김학모, 김학범, 김한석, 남기원, 남영우, 남창현, 남궁몽, 노재인, 류호창, 문도영, 문성무,
민정호, 민문기, 민춘자, 박관우, 박광민, 박광석, 박광천, 박기순, 박덕규, 박래화, 박명기, 박명옥, 박병진, 박복동, 박성도,
박성철, 박수남, 박숙희, 박순옥, 박암평, 박영만, 박용관, 박은미, 박의원, 박재동, 박재명, 박종록, 박정득, 박지연, 박진규,
박춘수, 박춘환, 박치윤, 박현근, 박현선, 박현일, 박현준, 박흥철, 방명수, 백계옥, 백규현, 변현구, 변현미, 서병용, 서인자,
서정식, 서정희, 서종훈, 서진솔, 성교훈, 성낙진, 손동식, 손성일, 손숙자, 손정국, 손현덕, 신건화, 신영해, 신철용, 신현대,
심우찬, 심우형, 심재철, 심종현, 심호경, 심흥기, 안미숙, 안상화, 안용석, 안재훈, 안현주, 양광석, 양성모, 양승호, 엄정희,
여완구, 오봉숙, 오연옥, 오재호, 오정택, 원경희, 원옥희, 원정호, 원진식, 유동일, 유명숙, 유명은, 유성재, 유양서, 유연상,
유영대, 유용호, 유용화, 유유순, 유종석, 유호진, 윤경섭, 윤성길, 윤성식, 윤태남, 윤형록, 윤희정, 이경란, 이경세, 이경애,
이관희, 이규상, 이금란, 이난우, 이대성, 이동선, 이두환, 이민수, 이보택, 이상민, 이상춘, 이상현, 이상훈, 이수진, 이영숙,
이영옥, 이영재, 이용수, 이우섭, 이윤희, 이윤주, 이은기, 이은순, 이장호, 이재규, 이재문, 이정선, 이정오, 이정용, 이종득,
이종성, 이주현, 이준호, 이지민, 이진수, 이진원, 이진표, 이진호, 이충우, 이치섭, 이태한, 이태희, 이필재, 이한명, 이항진,
이해준, 이혁상, 이현숙, 이환교, 이효동, 임경수, 임병옥, 임상규, 임서영, 임승일, 임창선, 임천규, 장금향, 장기화, 장배근,
장보신, 장영동, 장영철, 장현순, 전창중, 전충기, 전태성, 정성근, 정성범, 정숙영, 정승철, 정연숙, 정완식, 정은주, 정태경,
조두현, 조미령, 조상민, 조성경, 조성문, 조영주, 조윤민, 조정제, 조충현, 조태상, 조현광, 조현주, (주)거산, 주경옥, 주서운,
주영석, 주재성, 지석양, 차상규, 차세옥, 차용호, 차재원, 창상경, 채순근, 채용훈, 최 욱, 최계연, 최명수, 최병덕, 최병식,
최은영, 최종만, 최종범, 최진상, 탁옥남, 탁주호, 한경숙, 한기열, 한덕우, 한재길, 한효정, 한효주, 한희봉, 함명수, 함용석,
허 덕, 홍석영, 홍성옥, 홍은주, 홍은진, 홍재덕, 황갑용, 황복기, 황창성, 황형기

2014. 6. 16 현재, 총인원 430명
(상임 3명, 임원 36명, 여성위원 66명, 회원 325명)



여주문화원 회원가입 안내

여주문화원은 여주시민의 기본 권리인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와 지역과 국가의 문화융성을
지향하며 언제나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여주문화원의 사업은 |

-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계발 및 창달
- 향토사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수집
- 지역 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의 국내·외 교류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사회교육 활동

| 회원으로 함께 하시면 |

- 각종 문화행사 및 교육에 우선 참여
- 문화원 유적답사 및 문화활동에 초청
- 문화원 발간자료의 수령 및 소장 자료의 대여 및 열람
- 문화원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개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참여

| 가족이 되시려면 |

- 문화원에 비치된 가입신청서 작성(일반회원·후원회원, 회비 월 1만원)
- 또는, 전화 031) 883-3450으로 문의

「여강처럼」 원고모집

「여강처럼」은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삶의 지혜로 만들어 집니다.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나 여주에 대한 추억과 제언 등 형식과 내용에 구애됨 없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 :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6 (여주문화원) / 홈페이지 : www.yeojucc.co.kr > 커뮤니티 > 온라인 상담

▶보내실 때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발행인 및 발행처 |

계간 『驪江처럼』 통권 제23호, 2014년 6월 발행
발행인 문화원장 김문영 편집인 편집위원장 박광우 발행처 여주문화원
편집위원 전기중, 유명은, 안동희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6-6 (천송동) Tel 031. 883. 3450 www.yeojucc.co.kr

